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나이벡 (138610)

기술이전이 만든 턴어라운드, 이제는 신약가치의 입증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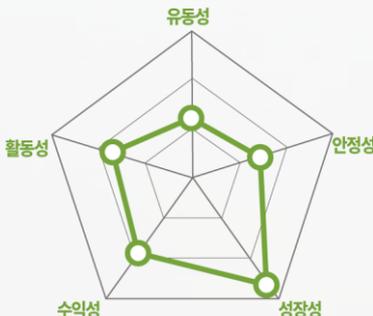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NP-201 글로벌 기술이전으로 수익구조 전환 가시화: 2025년 5월 미국 폐질환 전문기업 NewCo에 총 4.35억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금 109억 원 반영으로 단기 실적 개선
- 비만 치료제 'Regenotide'의 신약 가치: 근육량 보존형 체중감량 기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구제로 개발 예정,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 실적 턴어라운드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 진입: 2025년 매출액 342억 원(+39.3% YoY), 영업이익 53억 원(흑자전환) 전망되며, 기술이전 성과와 차기 파이프라인들로 인한 기술가치 중심 재평가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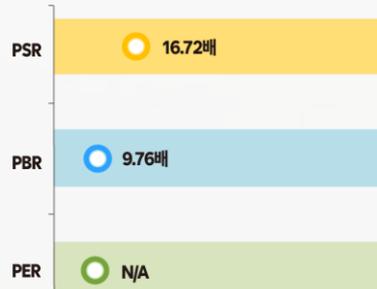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조직재생 바이오소재에서 펩타이드 신약 기업으로의 성장 가속화

나이벡은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와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및 제조하는 바이오기업으로, 2004년 설립되어 2011년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함. 주력 사업은 치과용 골재생 소재(OCS-B, GuidOss 등) 부문이며, 유럽 및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을 확대하는 중. 최근에는 펩타이드 용합 약물전달 플랫폼 'PEPTARDEL'을 기반으로 섬유증, 비만, 폐동맥고혈압 등 고부가 가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며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

NP-201 기술이전 성과와 'Regenotide'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 스토리

동사는 이번 5월 섬유증 치료제 'NP-201'을 미국 폐질환 전문기업 NewCo에 총 4.35억 달러 규모로 L/O하며, 단기 실적 개선과 함께 기술 기반 수익화 전략에 성공함. 계약금 109억 원과 이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과 순매출 대비 로열티(4%) 수취가 포함된 구조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기반을 확보함. 특히 임상, 인허가, 상업화 전 과정을 파트너사가 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동사는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술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동사의 차세대 성장축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Regenotide'는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차별적 기전을 기반으로 향후 추가 L/O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 기대됨.

신약 가치 기반의 리레이팅 국면 진입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342억 원(+39.3% YoY), 영업이익 53억 원(OPM 15.5%),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40억 원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의 뚜렷한 턴어라운드 전망. 이는 'NP-201'의 기술이전 수익 인식과 더불어, 주력 사업인 조직재생 바이오소재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이 맞물린 결과. 기술료 수익은 일회성으로 분류되지만, 확보된 현금 유동성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재투자될 예정으로,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전망. 향후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과 비만, PAH(폐동맥고혈압) 적응증 확장에 따른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감안하면, 2025년은 동사의 신약 가치 중심 바이오기업으로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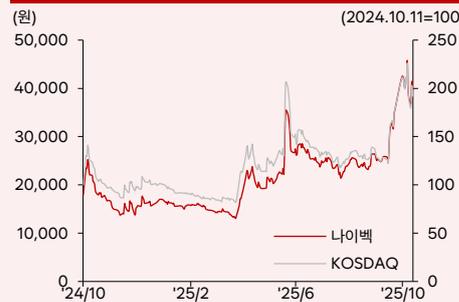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36	217	157	246	342
YoY(%)	114.3	59.0	-27.5	56.3	39.3
영업이익(억원)	-21	6	-22	-49	53
OP 마진(%)	-15.5	3.0	-14.2	-20.1	15.5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7	-38	-63	-93	40
EPS(원)	-580	-379	-631	-897	363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배)	N/A	N/A	N/A	N/A	109.0
PSR(배)	21.2	8.7	13.7	6.8	12.9
EV/EBITDA(배)	630.2	49.4	192.7	N/A	52.7
PBR(배)	10.6	5.7	7.6	5.4	12.3
ROE(%)	-19.4	-12.5	-20.3	-30.5	11.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23)	39,850원
52주 최고가	45,800원
52주 최저가	13,070원
KOSDAQ (10/23)	872.03p
자본금	54억원
시가총액	4,50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84억원
외국인지분율	2.05%
주요주주	정종평 외 6인 19.36%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51	779	934
상대주가	55.1	48.1	65.3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조직재생 바이오소재 기반의
치과용 의료기기와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 및 제조하는
바이오기업으로, 글로벌 인증을
보유한 제품 수출과 펩타이드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GMP 기반 CDMO 진출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중**

나이벡은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의 정제 및 가공을 기반으로 의료기기와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및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2004년 1월 설립되어 2011년 10월 기술성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0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된 이후,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충북 진천에 GMP 공장과 중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치과용 골이식재와 차폐막을 중심으로 한 조직재생 바이오소재를 기반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생체유래 골이식재인 OCS-B/OCS-H, 조직재생용 차폐막인 XenoGide/GuidOss, 구강보건용 의료기기인 SensBlok, Clinplant, 치주 항생연고 Minocure 등이 있다. 2012년 GuidOss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과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가 유럽 CE(Conformité Européenne)인증을 획득하고, 2013년에는 뼈유래치과용 골이식재(OCS-B)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허가 획득, 2020년에는 치과용 바이오소재가 중국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판매 품목허가를 승인받는 등 이들 제품은 국내 식약처 허가뿐 아니라 해외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 제품군 확장을 위해 기존 이종 골이식재의 차세대 제품인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소재 의료기기인 Pepticol-Ezgraft를 개발하였다. 이는 동사의 콜라겐 매트릭스에 항염 및 조직재생 기능성 펩타이드를 결합한 신개념 골이식재로 치아 발치 이후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로 개발되었다. 해당 제품은 2025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품목허가 획득이 기대되며, 국내 출시는 2026년으로 예정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 Pre-submission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또한, 동사는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부문에서 축적한 펩타이드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 중심의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섬유증 치료제, 비만 및 대사치료제, 근감소증 치료제, 치주염 치료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동사는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GMP 인증 시설을 확보하고 2015년 의약품 GMP, 2022년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GMP 시설인증 획득 및 원료의약품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5~2026년 동안 총 30억 원(2025년 20억 원, 2026년 10억 원)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246억 원이며, 이 중 수출은 20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1.9%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 제품은 치과용 조직재생 바이오소재이며, 중국,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연혁

2000~2013	2014~2018	도약기(1~1)
<p>2000 서울대 치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연구센터(ERC Center)로 지정</p> <p>2004 (주)나이벡 설립 (주)나이벡 중앙연구소 인준 (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 벤처기업 지정 (서울지방중소기업청)</p> <p>2005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치과용 골이식재 (OCS-B) 제조품목허가 취득</p> <p>2006 치과용 차폐막 (Nanogide-C) 제조품목허가 취득</p> <p>2007 이노비즈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의약품 제조업 허가 치아미백제 (BlancTis) 제조품목허가 취득 치과용골이식재 (OCS-H) 제조품목허가 취득</p> <p>2008 (주)나이벡 친진 GMP공장, 연구소 준공 시린이지료제 제조품목허가 취득 기술평가보증 벤처기업 지정 (기술보증기금)</p> <p>2009 본사이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27 이월전기전자능공단지 서울지점: 서울시 중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연구동 107호 CE 인증획득: OCS-H® (말뚝유래 골이식재) 치아미백제 블랑티스 (BlancTis) FDA인증 획득 치아미백제 블랑티스 포르테 (BlancTis Forte) FDA인증 획득 시린이지료제 센스블록 (SensBlok) FDA인증 획득</p> <p>2010 상정예비심사 기술성 평가 통과</p> <p>2011 GuidOss 제조품목허가 완료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OCS-H, GuidOss TFDA 허가 승인 획득 Ossen-X15 KFDA 허가승인 획득</p> <p>2012 CE인증 획득: GuidOss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 TFDA 품목허가: 치아미백제 블랑티스 포르테 II (BlancTis Forte II) CE인증 획득: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 태국식약청 품목허가: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 캐나다식약청 품목허가: OCS-H (말뚝유래 골이식재)</p> <p>2013 FDA 품목허가: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 KFDA 화장품 제조업, 판매업 허가</p>	<p>2014 KFDA 품목허가: Equimatrix-Collagen, OCS-B Collagen, Regenomer 중국식약청 품목허가: SensBlok (시린이지료제) FDA 품목허가: GuidOss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 Canada ISO 13485 (CMDCAS) 인증획득 KFDA 품목허가: 치과용 주사기 EN ISO 13485: 2012 갱신 CE인증 갱신: OCS-H (말뚝유래 골이식재)</p> <p>2015 의약품GMP(GMP) 획득 KFDA 품목허가: 클린티스(ClinTis) 코스닥시장 유상증자</p> <p>2016 대만식약청 품목허가: GuidOss(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 중국식약청 품목허가: 닥터마이유(기능성화장품) 러시아 판매허가: 닥터마이유(치아미백제)</p> <p>2017 펠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치과분야의 응용기술 이전 중국시장 독점판매권 및 공급계약 인도 판매허가: OCS-B, OCS-B Collagen 이스라엘 판매허가: OCS-B, OCS-B Collagen 캐나다 판매허가: OCS-B Collagen</p> <p>2018 유럽 판매허가: OCS-B Collagen 세포투과성 펠타이드 및 형광표지 자성나노입자 유입 특허 등록 줄기세포 재생용 펠타이드 대한민국 특허 등록 암줄기세포 표적 항암 미국 특허 등록 합성 펠타이드 이용한 유도만능 줄기세포 대한민국, 일본, 미국 특허 등록 티타늄 결합능을 가지는 펠타이드 대한민국 특허 등록 충청북도 스타기업 선정 MDSAP(The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획득 후연스와 공급계약: Minocure, Clinplant 스트리우만과 공급계약: OCS-B Collagen, Clinplant, Regenomer 펠타이드 골다공증 치료제 임상 완료</p>	<p>2019 세포외기질 단백질-골미네랄 복합체 함유하는 조직구조모사체 제조방법 미국특허 등록 세포 투과-해상성 펠타이드 국내특허 등록 치과용 골이식재(OCS-B) 중국 임상시험 완료 노벨바이오키에어 공급 확대 계약: OCS-B, OCS-B Collagen 스트리우만 신규 공급계약: OCS-B, OCS-B Collagen, Clinplant, Regenomer 2019 국제 치과 기자재 학회(특약 ID5)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부갑상선 호르몬에 골조직 선택적 펠타이드 융합) 관련 국내특허 등록 내성균 감염 치료제(바이오피름 억제용) 펠타이드 국내특허 등록 암줄기세포 성장억제용 펠타이드 유입 및 미국 특허 등록 항염증 원료인 펠타이드의 물질이전 계약 지르코니아 펠타이드 기술 유입 특허 등록 암줄기세포의 성장억제용 항암기능성 펠타이드 및 그 용도 유입 특허 등록 "펠타이드 플랫폼"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연구개발 계약 글로벌 빅파마와 "치료용 단백질 및 유도제" 연구용 물질이전 계약</p> <p>2020 글로벌 Top 3 제약사와 파이프라인 후보물 "급만성질환 단백질 치료제" 공급계약 체결 펠타이드 플랫폼과 관련해 6곳 다국적제약사와 비밀유지(CDA) 및 물질공급계약(MTA) 체결 골다공증치료제 NIPEP-OSS 임상 1상 승인 (KFDA) 골수종 표적항암치료제 MOU 체결(아간소대학교) 펠타이드 기반 감염예방제 및 응용기술 국내특허 취득 보건복지부 제1차 혁신성 의료기기 기업 선정 치과용 바이오소재 중국 NMPA 판매 품목허가 승인 한국화학연구원 항바이러스 치료물질(코로나치료제) 기술도입(약물재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연구과제 선정</p> <p>2021 다중의 질환 바이오마커의 기능 및 발현 억제 펠타이드 대한민국 특허 등록 약물전달플랫폼 적용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전달과 응용기술 개발 관련 특허 출원 다이어피산과 유전자전달 융합제 기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 체결 염증 및 대사성 질환의 바이오마커에 대한 결합능이 있는 신규 펠타이드 및 이의 용도 특허 등록</p> <p>2022 나이벡 펠타이드 기반 NP-201 호주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 펠타이드 원료의약품 GMP 시설 인증 획득 및 원료의약품 등록 글로벌중소기업 지정</p> <p>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연구과제 2단계 진인 NP-201 호주 1상 임상시험 완료(메스유증 치료제, 염증성장질환치료제)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재인증(2023.12.01~2026.11.30) 세계일류상품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24 NP-201 호주 1b/2a 임상시험 승인(염증성장질환치료제) 펠타이드 이지그라프트 오스 품목허가 취득 광반응성 펠타이드 조직재생 유도제 임상시험 승인 2025 법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원천기술 개발 사업 선정 NP-201 기술이전 계약 체결</p>

자료: 나이벡,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바이오 재생 소재 사업 (2024년 기준 매출 비중: 98.72%)

바이오 재생 소재 사업은 치과용 조직 재생 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증과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여기에 펠타이드 융합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재생의료기기 개발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나이벡의 바이오 재생 소재 사업은 치과용 조직 재생 소재를 중심으로 한 핵심 매출원으로, 회사의 기반 사업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역이다. 동사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골이식재, 흡수성 멤브레인, 콜라겐 기반 재생소재** 등을 중심으로 치과 및 구강외과 영역에서 조직 재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은 '**OCS-B 시리즈(골이식재), Regenomer(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은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수술, 치조골 재건, 치주조직 재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OCS-B는 동물유래 무기질 골이식재로, 인간의 뼈 구조와 유사한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치조골(Alveolar bone) 형성에 적합하다. 임플란트 시술이나 발치 후 골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골 대체재(Bone graft substitute)로 사용되며,

이식 후 체내에서 점진적으로 흡수되며 자가골로 치환되는 생체친화적 특성을 갖는다. ‘Regenomer’는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제 제품으로, 치주 재생술 시 이식 부위를 외부 세포로부터 보호하여 조직 유도 재생(Guided Tissue Regeneration, GTR) 또는 골 유도 재생(Guided Bone Regeneration, GBR)을 촉진한다. ‘Regenomer’는 천연 콜라겐을 정제하여 만든 순수형 멤브레인으로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조직 친화성을 특징점으로 가지고 있다.

동사는 해당 제품군에 대해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주요 글로벌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임플란트 기업인 **Straumann(스위스), Nobel Biocare(스위스)**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럽,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 중이다. 특히 2020년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허가**를 취득하며 아시아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로써 동사의 재생소재 제품군은 **글로벌 인증 및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동사는 기존 콜라겐 기반 제품에 자사 펩타이드 융합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재생의료기기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펩티콜-이지그라프트(Pepticol-EasyGraft)’는 콜라겐 매트릭스에 항염 및 조직재생 기능성 펩타이드를 결합한 신개념 골이식재료, 염증 제어와 재생 촉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해당 제품은 서울대치과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114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국내에는 26년에 출시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동사의 매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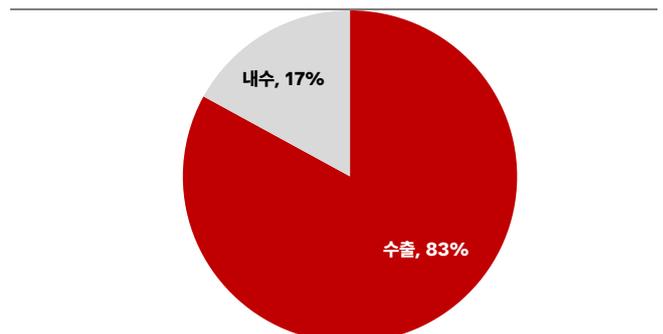
궁극적으로 동사의 바이오 재생 소재 사업은 **치과재생 분야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을 창출하는 주력 부문**으로, 기존 콜라겐 및 골이식재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펩타이드 융합 기술을 접목한 고기능성 제품군을 추가하며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다.

나이백 주요 제품



자료: 나이백,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2024년 수출/내수 매출 비중



자료: 나이백,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펩타이드 의약품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사업

나이백의 펩타이드 의약품 R&D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 발굴 및 전달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혁신 플랫폼 사업이다. 동사는 독자적 펩타이드 발굴 시스템과 세포 및 조직 선택적 전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 및 재생의료 영역에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펩타이드 의약품 R&D 사업은 PEPscovery 발굴 플랫폼과 PEPTARDEL 전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난치질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
핵심 자산인 **섬유증 치료제 NP-201**의 4.35억 달러 규모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해 펩타이드 기반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 중

동사는 질환 관련 단백질 타겟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PEPsccovery’ 플랫폼을 통해 환자 조직 및 질병 모델에서 활성 펩타이드를 탐색하며, 현재 약 800여 종의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확보해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신약 후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동사의 펩타이드들은 세포 외부의 단백질뿐 아니라 세포막을 통과해야 작용하는 세포내 표적까지 겨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 전달 역량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PEPTARDEL(PEptide based TARgeted DELivery)**’ 플랫폼이다.

‘PEPTARDEL’은 동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기술군으로, 약물을 병변 조직이나 특정 세포 내부로 선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플랫폼이다. 이 기술은 세부적으로 ‘**PEPTARDEL-T**’, ‘**PEPTARDEL-S**’, ‘**PEPTARDEL-O**’로 구분되는데, ‘PEPTARDEL-T’는 특정 조직 또는 세포에 대한 수용체 인식 펩타이드를 이용해 표적 부위로 약물을 집중 전달하는 기술로, 질병 부위 선택성과 치료 효율을 극대화한다. ‘PEPTARDEL-S’는 약물의 체내 지속성을 높여 장기 방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형태로, 만성 질환이나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치료제 개발에 적합하다. 한편, ‘PEPTARDEL-O’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펩타이드 제형화를 목표로 하며, 효소 안정성 강화와 장 점막 투과성을 개선해 경구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이다.

약물 전달 기술 PEPTARDEL 플랫폼

The diagram illustrates the PEPTARDEL platform, which is used for drug delivery.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porous, granular material labeled 'PEPTARDEL'. To the right, three panels describe different delivery methods:

- PEPTARDEL-T (표적조직 선택적 약물전달):** Targeted tissue selective drug delivery. It shows a mouse with a red spot on its back, a cross-section of a mouse showing a red spot in the liver, and a peptide chain structure.
- PEPTARDEL-S (펩타이드 지속형 피하주사제):** Peptide sustained subcutaneous injection. It shows a syringe injecting into a skin cross-section. Text: '단백질 약물을 단독 투여하면 표피에서 머무르는 현상 발생' (When protein drugs are administered alone, they tend to stay in the epidermis). '펩타이드 전달체를 통해 표피와 진피를 넘어 근육 내 혈관까지 약물 전달 가능' (Through peptide delivery vehicles, drug delivery is possible to blood vessels in the muscle).
- PEPTARDEL-O (펩타이드 경구형제제):** Peptide oral formulation. It shows a white capsule and a graph of % In Vitro Release vs Time (h). The graph shows a slow, sustained release over 24 hours.

자료: 나이벡,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플랫폼 외에 현재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섬유증, 비만 및 대사질환, 근감소증, 치주염, 폐동맥고혈압** 등 고부가 난치질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섬유증 치료제 ‘NP-201(β1 integrin agonist)’**은 대표적 핵심 자산으로, 호주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비만 등 4개 적응증으로 확장 개발 중이다. 2025년 5월, 동사는 ‘NP-201’을 미국의 폐질환 특화된 NewCo(비공개)에 **총 계약 규모 4억3,500만 달러** 규모로 **Upfront 800만 달러**를 수취하며 License-out(L/O)하여 상업화의 첫 결실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계약금,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너사가 임상 및 상업화를 주도함에 따라 동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술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NP-201'은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기술이전을 기점으로 동사의 펩타이드 기반 R&D 사업은 동사의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이백 보유 파이프라인 현황표

	Product	적용증	기술	전임상	임상	허가 및 판매	비고
의료 기기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	치과용 골, 치주조직 재생	다양한 소재의 정제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 FDA, NMPA 허가 완료 (판매 중) 매출 기여 (수출, 내수)
	펩타이드 함유 광반응성 콜라겐 기반 바이오소재 / PeptiCol Ezgraft	치주조직 재생	화학가교제 없이 빛에 의한 콜라겐 젤화 유도, 펩타이드 및 다양한 생리활성 인자에 의한 조직재생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임상시험 서울대 치과병원, 경희대 치과병원, 가천대 길병원 114명 대상 완료 2026 인허가 신청 FDA pre-submission 제출
재생 치료	섬유증 치료제	섬유증, 염증 성장질환	재생수용체 타겟 작용제(agon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 1상 완료, 기술이전 완료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
	비만 및 대사 치료제 (NPEP-AGP)	비만, MASH	지방세포로 분화 억제 기능에 의한 항비만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 1상 완료, GLP-1 agonist의 대표 부작용인 근감소증상 없음, 비만 주변 지방간 개선
신약	근감소증 치료제 (NPEP-MUS)	노화에 의한 근감소증	근육 재생 인자 및 생체모방펩타이드 기반 근섬유 재생, 운동능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사회로 수요 증가, 근원적 근감소 치료제 없음
	지주염 치료제 (NPEP-PERO)	지주염, 임플란트 주위염	펩타이드 및 지속형 국소 약물 전달 기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염증, 항박테리아 효과에 의한 지주염 치료, 현재 지주염의 근원적 치료제 없음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NPEP-PAH)	폐동맥 고혈압	SI 기반 다중 표적 펩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섬유증을 동반 폐동맥 고혈압, 근원적 치료제 없음

자료: 나이백,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구성

2025년 6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정종평 대표이사로, 보통주 1,725,403주(지분율 15.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및 임원 지분은 총 2,189,046주이며, 이는 전체 보통주의 약 19.4%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는 장계순(0.0%), 김정빈(0.1%)이 포함되며, 임원 박윤정(3.3%), 이주연(0.5%), 사외이사 김사성(0.2%), 감사 설양조(0.1%) 등이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구성(2025.06.30)



자료: 나이백,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 펩타이드 의약품 산업

펩타이드 의약품 산업은 기술 혁신과 경구 제형화, 적응증 다변화를 기반으로 대사질환부터 희귀질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고성장 바이오 신약 산업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은 최근 수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유망한 성장 궤도에 진입해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만과 당뇨를 중심으로 한 대사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GLP-1 계열 펩타이드 약물의 상업적 성공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이처럼 대사질환 영역에서의 성공 사례는 국내외 제약/바이오사들의 펩타이드 R&D 투자 확대를 이끌고 있고, 산업 외형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펩타이드 치료제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작용 지속 시간이 짧아 활용도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천연 아미노산 도입, 고리화 구조 적용, PEGylation 등의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반감기를 크게 개선한 개량형 펩타이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약물 전달 플랫폼의 진보는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피하주사(SC, SubCutaneous)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흡수 촉진 제형 및 나노입자 기반의 경구 제형이 등장하면서 복약 편의성을 위한 제형 연구들이 활발해졌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구용 펩타이드 치료제인 ‘Rybelsus’는 경구 제형화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다.

적응증 측면에서 펩타이드 치료제의 적용 범위는 전통적인 호르몬 대체 및 대사질환을 넘어, 섬유증, 근감소증, 폐동맥 고혈압(PAH) 등 고난이도 난치질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의 경우, 최근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승인된 치료제는 Nintedanib(베링거인겔하임)과 Pirfenidone(로슈) 두 가지에 불과했다. 이들 약물은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치며, 간독성 및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장기 복용 시 환자 순응도가 낮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반영하듯, 새로운 치료 기전의 후보물질이 개발되어 왔고, 대표적으로 Nerandomilast(베링거인겔하임)는 PDE4 억제 기반의 항염증 약물로, 2025년 10월 미국 FDA로부터 IPF 치료제로 승인받으며 시장에 진입했다. 경구 제형으로 개발된 이 약물은 기존 PDE4 억제제 대비 위장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폐 내 염증 반응과 섬유화 기전을 동시에 억제하는 복합 기전을 바탕으로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기존 치료제들의 효과 제한성과 부작용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손상된 조직의 재생 유도와 섬유화 억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펩타이드 기반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시로 미국의 Rein Therapeutics가 개발 중인 ‘LTI-03’는 Caveolin-1 유래 펩타이드로, 폐섬유증 동물 모델에서 섬유화 인자 억제와 폐포 상피세포의 생존 및 재생 촉진이라는 이중 기전을 입증하며 2025년 5월 임상 2상에 진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직 재생형 펩타이드는 기존 치료제 대비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 동시에, 질병 수정 효과(disease-modifying effect)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산업계 및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펩타이드 기반 항섬유화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은 IPF를 포함한 섬유증 질환을 타깃으로 한 펩타이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돼 공동개발 단계에 진입하는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적응증 측면에서 펩타이드 치료제의 적용 범위는 호르몬 대체 및 전통적 대사질환을 넘어 섬유증, 근감소증, 폐동맥고혈압(PAH) 등 난치성 질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비만/당뇨 치료 분야에서는 기존의 단일 계열인 Semaglutide(GLP-1 작용제)를 뛰어넘는 다중작용 펩타이드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Tirzepatide(제품명: Mounjaro/Zepbound)로, GLP-1과 GIP 이중작용 기전으로 체중감소 및 혈당조절에서 Semaglutide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계열은 나아가 GLP-1/GIP/Glucagon 삼중작용제까지 진화 중에 있으며, 후기 임상단계에 진입한 물질도 존재해 적응증 확장 및 기전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최근 개발 트렌드는 단순 체중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근육량 보존, 경구투여 제형화, 복약편의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시로 Tirzepatide 사용 시 지방감소는 명확하지만 일부 보고에서는 근육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근육보존형 후보물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기존 주사제에 비해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경구용 펩타이드 또는 연속형 제형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만/MASH/당뇨 등 복합 대사질환을 겨냥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해 GLP-1 기반 또는 다중표적 펩타이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물질은 해외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단계에 진입해 산업 확산성과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이러한 변화는 펩타이드 치료제가 기존 남은 미충족 수요(복약 편의성, 제형 제약, 근육 손실 등)를 해소하며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의 외형과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근감소증은 아직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미충족 시장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인데, 근육 cytokine 유래 펩타이드나 myostatin 신호 차단 기전을 활용한 단백질펩타이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노화 근육의 재생 유도와 섬유화 억제라는 이중 접근법이 여러 임상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폐동맥고혈압 PAH(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은 혈관 재형성 억제를 통한 질병 수정형 치료제 개발 수요가 높은 희귀질환 분야인데, 기존 약물은 혈액학적 개선에 그치지만, 펩타이드 기반의 신경 유래 단백질이나 염증 억제 기전 약물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개발되고 있다. 실제로 Netrin-1 유래 펩타이드나 HMGB1(High Mobility Group Box 1) 차단 펩타이드(P5779) 등이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생존율 및 혈관 리모델링 억제 효과를 나타내며 전임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일부 바이오텍은 폐섬유화 억제 및 폐혈관 재생 유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융합형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PAH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글로벌 임상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펩타이드 의약품 산업은 시장 규모의 확대, 기술적 진화, 적응증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성장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과거에는 주로 호르몬 대체 치료에 국한되던 펩타이드 약물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분야까지 진입하며 산업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와 약물 전달 혁신, 경구 제형화와 AI 기반 신약 설계의 도입 등은 펩타이드 치료제가 미래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 내 다수의 펩타이드 기반 혁신 신약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펩타이드 의약품 산업의 성장 스토리는 이미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포인트

1 NP-201 글로벌 기술이전과 임상 확장 – 수익 가속화 잠재력 보유

섬유증 치료제 ‘NP-201’은 미국 바이오기업에 총 4.35억 달러 규모로 기술이전되며 다층적 수익구조와 적응증 확장 기반의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까지 확보해, 단기 실적 개선은 물론 중장기 기술 기반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갖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부각

나이백의 섬유증 치료제 ‘NP-201’은 2025년 5월 미국 NewCo(비공개)에 총 4.35억 달러 규모로 L/O되며 회사의 기술 기반 수익화 전략이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계약 구조는 **계약금(800만 달러, 약 109억 원)** 수령을 포함해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상업화 성공 시 추가 지급, 순매출 대비 **4% 로열티**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수익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기 유동성 확보는 물론 중장기 고정 수익원의 확보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파트너사가 임상, 인허가, 상업화를 전담하는 구조로, 동사는 개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술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딜을 체결한 셈이다. 더불어 회사는 **물질 공급 계약을 병행하여 기술이전 이후에도 임상 시료 및 원료 공급을 통한 추가 매출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단순 기술료 수취를 넘어 지속적 수익 창출 기반까지 확보한 의미 있는 기술이전계약으로 볼 수 있다.

‘NP-201’은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기존 항섬유화 치료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한 펩타이드 기반 혁신 신약으로, 이미 호주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내약성 결과를 입증한 바 있다.

‘NP-201’은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펩타이드 기전을 바탕으로, 기존 특발성 폐섬유증(PF) 치료제들이 적용해 왔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Nintedanib) 및 항섬유화제(Pirfenidone)의 ‘저해(antagonist)’ 중심 접근 방식과 차별화된 재생 및 질병수정형 기전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Nintedanib은 PDGF, FGF, VEGF 수용체 등의 티로신키나제를 억제함으로써 섬유화 진행을 지연시키는 기전을 띠며, Pirfenidone은 TGF-β 및 기타 섬유화 관련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고 세포 내 섬유화 매개체 축적을 방어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들 약물은 ‘섬유화 증식 및 이행(inhibition)’이라는 저해 중심 접근이라면, ‘NP-201’은 **β1 인테그린(β1 integrin) 작용(agonism)**을 통해 **상피세포의 복구 및 섬유화 신호 억제**를 병행하도록 설계되어, 섬유화 억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직 복원과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호주 임상1상에서 초기 긍정적인 내약성 임상 결과를 확보한 바 있어, ‘진행 늑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복구 중심 치료’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후보물질로 평가된다.

주요 적응증인 특발성 폐섬유증(IPF)을 중심으로 향후 비만, 종양, 뇌질환 등 4개 분야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파트너사는 폐질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임상 2상을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어서 임상 IPF를 중심으로 한 **2상 종료 시점인 2027년 하반기에 첫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트너사는 동사가 보유한 다른 펩타이드 물질인 ‘NIPEP-PAH’의 PAH 영역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PAH 적응증에 대해 추가 L/O 협상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파트너십 확대에 따른 추가 수익화 기회를 열어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라이선스 아웃(L/O)은 치료 영역별 권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동사는 ‘NP-201’의 섬유증 질환 이외에 비만 등의 다른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별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응증 확장에 따른 추가 기술이전 기회가 열려 있으며,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NP-201’은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최근 Scripps Seaside Forum – Peptide Therapeutics Symposium 2025에서 이 물질의 국제명 ‘Regenotide(리제노타이

드)로 공개되었으며, 전임상 결과에서는 **‘근육은 늘리고 체중은 감량’**이라는 최근 비만 신약 개발 트렌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genotide는 **GLP-1 대비 지방 축적을 60% 이상 억제하고 근섬유 단면적이 2배 확대**되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경구형 제형으로 임상 2상에 진입할 경우 주사제형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국내외 제약/바이오사의 경쟁 신약 대비 속도전과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성과 글로벌 시장의 관심 역시 더해져, 비만 신약 영역에서 ‘Regenotide’는 추가 L/O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NP-201’은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단기 실적 개선뿐 아니라 적응증 확장에 기반한 추가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술 기반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할 핵심 파이프라인이기에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나이벡 섬유증 치료제 신약 개발 현황

치료제 전략 세부내용

섬유증 억제뿐 아니라 손상 조직 재생 효과도 보유

독창적인 제조직 선택적 전달 기전

Phase 1 임상 개요

대상	건강한 성인 32명
투여병식	폐허상사제형, 위약병용투여
용량	환자군별로 100mg, 200mg, 300mg, 400mg 투여

Phase 2 임상 주요 데이터

안전성 평가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SAE) 없음

이외 혈액-소변을 이용한 진단검사, 골격밀도 검사, 심전도 및 호흡기능 등의 검사에서도 위험 이상값 기록

발증 빈도 및 소실속도 안정화, 항종양물 최대용량 유지 확인

자료: 나이벡,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나이벡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신약 개발 현황

NIPEP-PAH 개요

폐동맥고혈압 (PAH) 개요

폐동맥의 혈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폐고혈압의 활동

단기병으로 분류되는 폐동맥고혈압

글로벌 PAH 치료제 시장 규모

2023: \$3.2억

2028: \$12.2억

CAGR 5.7%

유병률 증가 & 치료제 부족, 시장 지속 성장

NIPEP-PAH 개발 현황

AI 기반 다중표적 제어 플랫폼 발굴

PAH 효능 및 안전성 확인 예정

NIPEP-PAH 주요 특징

- 병리학적 복잡성 | 발병 과정이 복잡하고 원인이 불분명
- 조기 진단 난해성 | 초기 증상의 특이성이 없음
- 근본적 치료 불가 | 증상 완화 치료제만 존재
- 기존 치료제 한계 | 고가 및 부작용 심화하는 치료제
- 제한적인 R&D | 환자 수 적어 신약 개발 및 개선이 어려움

MSD PAH 치료 신약 후보물질 스테라렐트, FDA 우선심사대상 지정

NIPEP-PAH는 MSD의 원재에 달러 질환을 재생시켜 근본적 치료 가능

혁신치료제/차별화약품 선정 사례 존재

자료: 나이벡,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Regenotide 전임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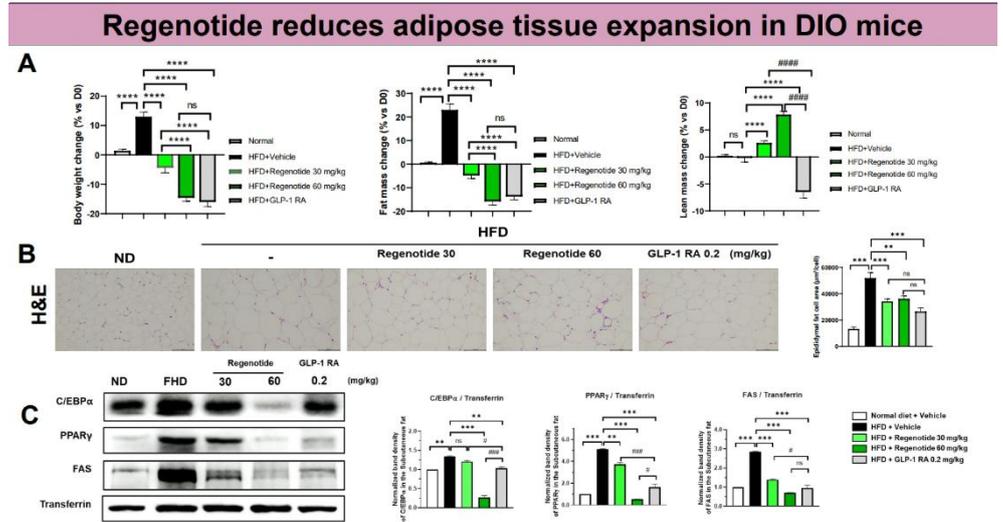


Figure 2. Regenotide reduces lipid deposition in WAT and downregulates adipogenic proteins Regenotide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body weight and fat mass while increasing lean mass (A), and markedly decreased adipocyte size in epididymal adipose tissue (B).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downregulation of C/EBPα, PPARγ, and FAS proteins compared with GLP-1 RA (C), confirming superior anti-adipogenic efficacy.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PTARDEL 플랫폼 기반 펩타이드 파이프라인 확장

조직 선택적 전달과 경구 제형화를 동시에 구현한 차세대 펩타이드 플랫폼 'PEPTARDEL'을 기반으로 다중 적응증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

나이벡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펩타이드 용합 약물전달 플랫폼인 'PEPTARDEL'을 중심으로 다중 적응증에 대응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플랫폼 기술 기반 기업가치 상승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PEPTARDEL'은 기존 동사의 NIPEP-TPP(NIBEC PEPTide with Target tissue Penetrating Property) 기술을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조직 선택적 약물전달(DDS, Drug Delivery System)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구 제형화 및 지속형 제형화까지 가능해 펩타이드 치료제의 복약 편의성과 효과지속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장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은 약물이 **장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경구 투여 시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병변 조직에 약물이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적 장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플랫폼 기술의 가치는 파이프라인의 개별 수익화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는데, 동사는 'PEPTARDEL'을 기반으로 각 적응증별 펩타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들 후보물질은 독립적인 L/O 또는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 단계적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NP-201' 기술이전 이후 회사가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기술가치 중심 성장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동사는 Daiichi Sankyo(일본), Sarepta Therapeutics(미국) 등과의 전례 있는 협업 사례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신뢰 기반을 구축한 바 있으며, 플랫폼 기술이 단순 실험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기술이전 건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EPTARDEL'은 유전자치료제, RNA 기반 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s)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물전달 기술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화뿐 아니라 중장기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동사의 'PEPTARDEL' 플랫폼은 펩타이드 신약 개발의 범용성을 갖춘 기반기술로서, 향후

다수의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는 동사의 핵심 성장 축의 한 부분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PEPTARDEL-T Targeted Delivery 플랫폼

PEPTARDEL-T의 작용기전

PEPTARDEL-T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파이프로라인 대표 결과

	Targeting	Lasting
NIBEC	●	●
타사	●	○

자료: 나이벡,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PTARDEL-S: 펩타이드 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

펩타이드 기반 분자량 2~3,000

조성을 특허 방식

- 작은 분자량으로 투여 시 용출 최소화
- 약물 형태 용이, 다양한 적용 가능
- 피하 주입, 알종도달
- 펩타이드 약물과 다양한 약물을 치료 기간에 맞춰 가능한 전달 소재(GRAS)

PEPTARDEL-S의 장점

- PEPTARDEL-S의 장점: 펩타이드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 PEPTARDEL-S의 장점: 펩타이드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 PEPTARDEL-S의 장점: 펩타이드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자료: 나이벡,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PTARDEL-O: 대장표적용 경구제형 플랫폼

고도형 : 경구제형 PEPTARDEL-O 개요

PEPTARDEL-O: 루스캡슐형 및 용출률도 지속형 제형

- ① 내용물 용출부위 선택적으로 용출률 지속 촉진
- ② 방출이완 부위, 방출 부위까지 약물 전달

PEPTARDEL-O 기반 경구제형 개발 전략

- 장출생장 촉진/억제 유능성 치료제 등 적용
- 손상된 조직 회복성 증대
-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과정에서 피하 및 경구제형의 예정
- 비만 치료제(NIPEP-AQP) 적용
- 글로벌 비만치료제 기업 관심도 높은 상황, GLP-1 유사 펩타이드 포함 비만치료제 임상도 추진 계획 예정

자료: 나이벡,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PTARDEL-O: 점막투과 및 혈중 농도 지속형 유지 경구제형 플랫폼

[지방산 유도체 기반 점막 투과 시스템]

01 | 지방산 유도체 기반 점막 투과 시스템

02 | 점막투과 및 혈중 농도 지속형 유지 경구제형

PEPTARDEL-O 장점

- 장출생장 촉진/억제 유능성 치료제 등 적용
- 손상된 조직 회복성 증대
-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과정에서 피하 및 경구제형의 예정
- 비만 치료제(NIPEP-AQP) 적용
- 글로벌 비만치료제 기업 관심도 높은 상황, GLP-1 유사 펩타이드 포함 비만치료제 임상도 추진 계획 예정

자료: 나이벡,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2024년 유럽,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시장 확대로 매출이 56.3% 증가했으나, 판관비 급증과 일회성 비용, 전환사채 관련 손실로 인해 적자 폭이 확대됨

나이벡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3%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주력 제품인 골재생 소재(OCS-B 이종골 이식재 및 콜라겐 등)의 유럽 수출 급증과 더불어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가 본격화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유럽 시장에서 병원 및 유통 네트워크 확장이 가시화되었고, 중국 및 북미 시장에서도 현지 파트너십 강화와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다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는데, 영업손실은 49억 원으로 전년(-22억 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당기순손실 역시 93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원인은 **판관비 급증과 일회성 비용 반영** 때문이다. 2024년 판관비는 전년 105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약 68%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시장 내 유통망 다각화를 위한 영업권 보상비용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해당 비용은 일시적인 성격의 항목으로, 동사의 파트너사 Straumann의 중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비독점 형태로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약 스텝으로 24년도 영업손실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도 45억 원으로 전년(40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하여,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파이프라인 투자 부담이 이어졌다. 재무비용 측면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반영되며 손실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골재생 바이오소재 사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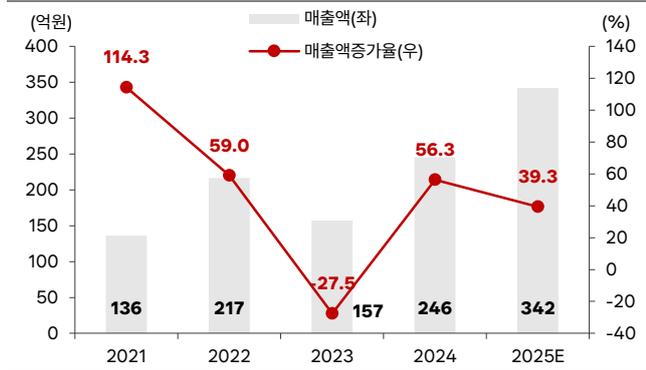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은 'NP-201' 글로벌 기술이전 수익과 골재생 소재 매출 유지가 맞물리며 매출 342억 원(+39.3% YoY), 영업이익 53억 원(OPM 15.5%)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전환과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이 기대되는 해

2025년 나이벡은 전사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력인 골재생 의료기기(OCS-B, GuidOss 등)의 글로벌 판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펩타이드 기반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핵심 자산인 'NP-201'의 기술이전 수익이 반영되면서 매출과 이익의 동반 개선이 기대된다.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은 53억 원(흑자전환, OPM: 15.5%),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40억 원(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전년의 적자 구조에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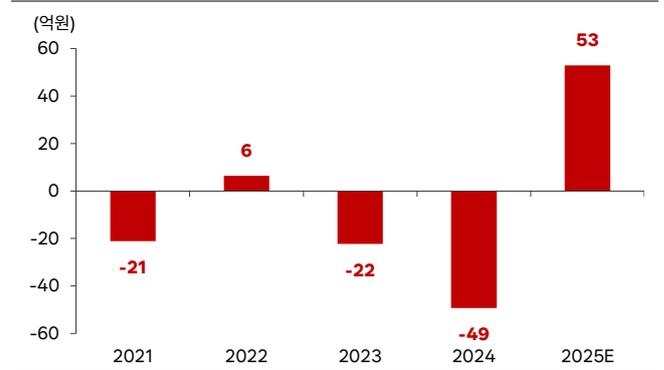
특히 2025년 2분기에는 'NP-201'의 미국 제약사 대상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총 규모 4.35억 달러)에 따른 1차 계약금 109억 원(USD 800만 달러)을 인식했으며, 이로 인해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214억 원(+72.9% YoY), 영업이익 72억 원(+1,069% YoY),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62억 원(흑자전환)으로 집계되며 대폭적인 실적 개선을 견인하였다. 기술료 수익은 일회성으로 분류되지만, 전년 매출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보된 현금 유동성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및 플랫폼 확장에 전략적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연구개발비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2024년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는 효과와 더불어 영업손익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25년은 기술이전 성과와 본업의 안정적 매출이 맞물리며 동사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17	157	246	342
증가율 (%)	59.0	-27.5	56.3	39.3
제품	216	154	245	233
기타수익(계약금 및 상품매출)	0.6	2.8	0.6	109.4
매출원가	86	74	119	111
매출원가율 (%)	39.6	47.1	48.4	32.5
영업이익	-21	6	-22	53
영업이익률 (%)	-15.5	3.0	-14.2	15.5
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세전계속사업이익	-46	-62	-93	42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당기순이익	-38	-63	-93	40
순이익률 (%)	-42.1	-17.4	-40.0	11.8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8	-63	-93	4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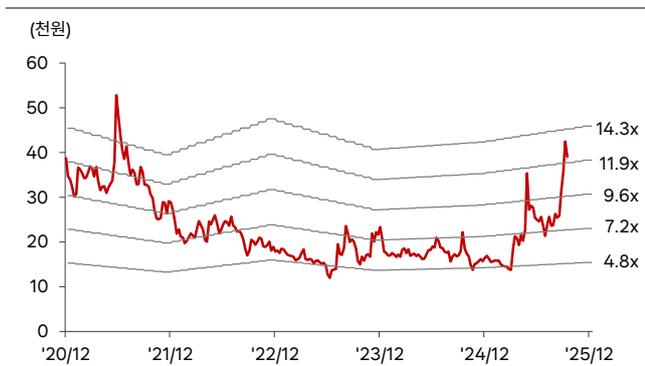
**‘NP-201’ 기술이전 성과와
본업의 안정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5년 PBR 12.3배, PSR
12.9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예상되며, 이는 기술 기반
수익화가 본격 반영되는 “리레이팅
초입 구간”으로, 흑자전환과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 모멘텀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나이백의 2025년 실적 전망치를 기반한 예상 밸류에이션 지표는 **PBR 12.3배, PSR 12.9배 수준**(2024년 기준 PBR: 5.4배, PSR: 6.8배)으로 추정된다. 표면적으로는 멀티플이 상승하는 구간처럼 보이지만, 이는 1) 2025년 ‘NP-201’ 기술 이전 수익 인식에 따른 이익 규모 확대와, 2) 기존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부문 안정적 매출을 반영한 구조적 체질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24년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금년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ER 산정이 가능해 졌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나, 바이오 산업 내 신약개발 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의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확신 하기에는 제한점 있어 PER보다는 PBR 및 PSR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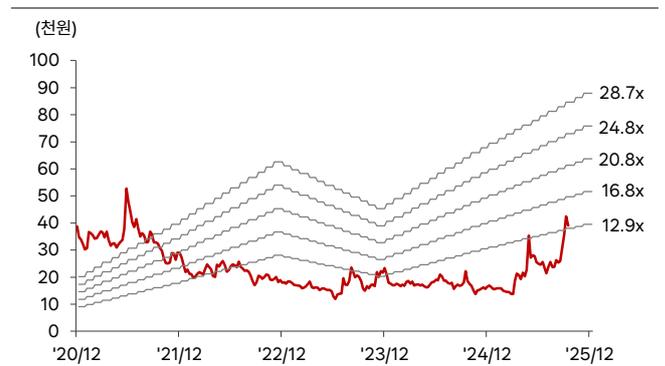
동사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PBR 밴드는 3.9~18.5배(평균 7.6배), PSR 밴드는 5.1~69.2배(평균 15.5배)로 형성되어 왔다. 이를 감안할 때, 2025년 예상 PBR 12.3배는 밴드의 중상단, PSR 12.9배는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는 과거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저평가되었던 시기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실적이 본격적으로 기업가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구간임을 시사한다. 특히 ‘NP-201’의 글로벌 L/O 계약(총 4.35억 달러 규모)이 단순 일회성 수익이 아닌, 후속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확장과 플랫폼 신뢰도 제고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리레이팅 초입”** 구간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력 사업인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가 유럽, 중국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 ‘Regenotide’(비만 치료제)와 ‘NP-201’ PAH 적응증을 기반한 후속 파이프라인 L/O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신약 가치로 인한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현재의 멀티플(PBR 12.3배, PSR 12.9배)은 최근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술가치 중심의 성장 전환 국면, 흑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후속 L/O 모멘텀 등을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프리미엄이 아닌 **정당화 가능한 재평가 구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25년은 동사의 단기 실적 모멘텀을 넘어, **신약 가치 중심의 중장기 밸류 리레이팅 사이클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백 PBR 밴드 차트



나이백 PSR 밴드 차트



 **리스크 요인**

‘NP-201’ 기술이전 성과로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했으나, 중장기 성장의 지속 여부는 파트너사(NewCo)의 임상 수행 역량과 차기 핵심 파이프라인 ‘Regenotide’의 임상 속도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으며, 이들 리스크가 관리된다면 기술 기반 성장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나이벡은 ‘NP-201’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진입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모델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리스크는 **1) 파트너사 (NewCo)의 개발 역량, 2) 차기 핵심 파이프라인 ‘Regenotide’의 임상 진척 속도 및 경쟁 심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트너사(NewCo)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투자 심리 및 신뢰도 확보**의 한계점이다. 2025년 5월, 동사는 섬유증 치료제 ‘NP-201’을 미국의 폐질환 전문 NewCo에 기술이전(L/O)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파트너사의 구체적인 자금력, 조직 규모, 파이프라인 구성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이전 사례에서도 여러 임상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을 반환하거나 중단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NP-201’을 파트너사가 글로벌 후기 임상 및 상용화까지 진행시킬 여력이 있을지가 중요한 투자 판단 포인트다. 다만, 최근 유사 구조의 NewCo가 대형 글로벌 빅파마에 인수된 뒤 파이프라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예: Metsera-Pfizer 인수)도 존재한다. 따라서 NewCo의 역량이 입증되거나 후속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NP-201’의 상업화 가능성은 오히려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비만 치료제 ‘Regenotide(리제노타이드)’의 임상 진척 속도와 경쟁 심화 리스크**다. 동사는 경구용 제형의 ‘Regenotide’를 동사의 차기 성장축으로 개발 중이며,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임상 2상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IND(임상시험계획) 신청 계획에 대해 회사측은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임상 진입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시장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동사의 임상 진입 속도가 지연될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은 후속 주자로 밀려 시장 내 L/O의 기회나 및 파이프라인의 시장 매력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2025년 ‘NP-201’ 기술이전 수익(109억 원)의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 실적은 금년도 대비 둔화되는 그림을 보일 확률이 높는데, 이는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동사의 파이프라인별 개발 타임라인과 주요 마일스톤을 명확히 공개하고, 일회성 기술료 수익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 여부는 향후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동사의 주요 리스크는 신약 개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전형적 바이오 밸류체인 리스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는 이번 ‘NP-201’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해 단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추가 파트너십 추진과 경구 제형 비만 신약 개발 등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확보한 상황이다. 임상과 기술이전 모두에서 단계적 진척이 확인된다면, 동사는 본 리스크들을 흡수하며 기술기반 성장주로의 체질 전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36	217	157	246	342
증가율(%)	114.3	59.0	-27.5	56.3	39.3
매출원가	66	86	74	119	111
매출원가율(%)	48.5	39.6	47.1	48.4	32.5
매출총이익	70	130	83	127	231
매출이익률(%)	51.5	60.2	52.6	51.7	67.5
판매관리비	91	124	105	176	178
판매비율(%)	66.9	57.1	66.9	71.5	52.0
EBITDA	5	37	11	-17	84
EBITDA 이익률(%)	3.4	17.3	7.3	-6.8	24.5
증가율(%)	흑전	713.7	-69.4	적전	흑전
영업이익	-21	6	-22	-49	53
영업이익률(%)	-15.5	3.0	-14.2	-20.1	15.5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영업외손익	-35	-53	-40	-44	-11
금융수익	1	2	15	5	5
금융비용	42	61	41	39	10
기타영업외손익	5	6	-14	-10	-6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7	-46	-62	-93	42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1	-9	1	-0	2
계속사업이익	-57	-38	-63	-93	4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7	-38	-63	-93	40
당기순이익률(%)	-42.1	-17.4	-40.0	-38.0	11.8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57	-38	-63	-93	40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	54	-20	3	31
당기순이익	-57	-38	-63	-93	40
유형자산 상각비	16	19	21	21	20
무형자산 상각비	9	12	13	12	11
외환손익	0	1	1	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6	-7	-38	8	-23
기타	56	67	46	52	-1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2	-68	-5	14	-2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1	-50	81	53	12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3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6	-10	-36	-15	-22
기타	-67	-8	-50	-27	-1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	126	-38	-7	-44
차입금의 증가(감소)	-3	28	20	-7	-29
사채의증가(감소)	0	100	-50	0	-15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6	-2	-8	0	0
기타현금흐름	3	5	3	10	7
현금의증가(감소)	-60	117	-60	19	-30
기초현금	215	156	272	213	232
기말현금	156	272	213	232	202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270	446	410	378	352
현금성자산	156	272	213	232	202
단기투자자산	38	89	80	8	12
매출채권	29	31	47	79	67
재고자산	42	50	64	52	57
기타유동자산	5	4	6	6	14
비유동자산	263	263	258	246	247
유형자산	127	119	155	148	144
무형자산	81	77	89	81	98
투자자산	56	67	15	17	5
기타비유동자산	-1	0	-1	0	0
자산총계	533	710	668	625	599
유동부채	59	140	312	250	182
단기차입금	22	51	59	57	57
매입채무	2	2	2	3	4
기타유동부채	35	87	251	190	121
비유동부채	201	240	68	52	53
사채	97	106	0	0	0
장기차입금	11	9	18	14	14
기타비유동부채	93	125	50	38	39
부채총계	259	379	380	302	235
지배주주지분	273	331	288	322	363
자본금	50	50	51	54	54
자본잉여금	563	635	663	785	785
자본조정 등	22	41	42	41	4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360	-395	-467	-559	-518
자본총계	273	331	288	322	363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N/A	N/A	N/A	109.0
P/B(배)	10.6	5.7	7.6	5.4	12.3
P/S(배)	21.2	8.7	13.7	6.8	12.9
EV/EBITDA(배)	630.2	49.4	192.7	N/A	52.7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580	-379	-631	-897	363
BPS(원)	2,761	3,321	2,846	2,959	3,208
SPS(원)	1,376	2,180	1,576	2,362	3,064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9.4	-12.5	-20.3	-30.5	11.8
ROA	-10.8	-6.1	-9.1	-14.4	6.6
ROIC	-8.3	1.9	-7.5	-15.5	16.1
안정성(%)					
유동비율	458.7	319.8	131.4	151.2	193.7
부채비율	94.8	114.7	131.6	93.8	64.8
순차입금비율	5.7	-10.8	5.4	-13.5	-16.8
이자보상배율	-1.2	0.3	-0.8	-2.4	N/A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3	0.2	0.4	0.6
매출채권회전율	5.6	7.2	4.0	3.9	4.7
재고자산회전율	3.5	4.7	2.8	4.2	6.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나이백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0.27	나이백 - 기술이전이 만든 턴아라운드, 이제는 신약가치의 입증 시간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